

주택건설 부동의 1위, 현대산업개발

- 삶의 질 향상과 인류의 꿈을 건설을 통해 실현하는 기업 -

이 땅의 건축문화를 선도하며 건설업계를 리드해온 현대산업개발(회장 정세영)은 항상 앞선 생각과 행동으로 새로운 것에 도전하여 무한가치를 창조해 왔으며 주거문화 창달의 기수로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기업이다.

끊임없는 개혁과 창조로 정진하며 풍요로운 미래 건설에 진념하며 더불어 국내외시장의 개혁자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는 현대산업개발, 새천년에 들어서도 그 명성에 걸맞게 힘찬 도약을 준비하며 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신공법 개발과 각종 기술투자 및 첨단 주택신소재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세계 건설업계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속에서 보다 환경 친화적이며 인간중심의 건축문화에 공헌하는 세계 초일류기업으로 거듭나고자 새천년 힘차게 도약하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을 찾아가 보았다. <취재/박병기 기자>

주택건설 부동의 1인자

현대산업개발은 자타가 공인하는 주택건설업계의 1인자로 지금까지 30만여 가구에 달하는 주택을 건설하여 주택업계를 선도해 왔다.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기업간의 치열한 생존 경쟁은 국경을 초월하여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현대산업개발은 건설부문에 있어 항상 건축문화를 선도해 나가며 동종의 건설업계를 이끌고 있는 정상의 기업이다. 이미 주택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으며 '더욱 품질 높은 주택'을 '더욱 경제적인 가

격'에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 세계적인 품질수준에 적합한 제품을 개발하여 주거문화의 질을 향상시켜 왔다.

현대산업개발은 현재 제 2의 도약을 추진중에 있다. 경영의 과학화와 선진화를 위한 효율적인 경영시스템 도입과 21세기 초일류기업으로 도약키 위한 기업체질 강화 방안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건설부문에도 적극 진출하여 해외시장에서 선진 건설업체들과 대등한 경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극심한 건설경기의 침체속에서도 현대산업개발은 영업목표 달성 및 순이익의 증대

그리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효율적인 분양정책과 적극적인 경영혁신의 노력을 거듭하였다.

그 결과 매출액은 2조 812억원으로 전년 대비 4%가 증가하였고 수주는 4조 1,348억원으로 전년 대비 6%가 늘어난 실적을 올렸다. 이로 인해 1,987억원의 영업이익이과 1,158억원의 경상이익, 79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다.

또한 국내 기업으로서서는 최초로 선진금융기법인 ABS라는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부채비율을 193%로 낮추었다. 이같은 실적은 창사이래 최고의 경영실적으로 이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수주를 지



난해 보다 46% 증가한 6조 478 억원을 그리고 매출은 전년대비 17% 증가한 2조 4,273억원을 각각 달성할 계획이다.

“이러한 목표달성으로 주택업계의 리더라는 부동의 위치를 확고히 다질 것입니다. 또한 주택시장의 수요회복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격적인 경영을 전개할 것이며 최고품질의 인공지능형 관리시스템의 가동과 인터넷 생활화가 가능한 최첨단 주거공간의 창조에 이르기까지 한 단계 더 발전된 개념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주거문화를 선도할 것입니다” (현대산업개발 이방주 사장).

최고의 품질, 현대만의 자랑

현대산업개발은 인체공학적 인 설계, 우수한 시공력, 철저한 품질관리, 신속한 사후관리,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해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공간을 창조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80년대 한강변을 바라다보는 압구정동의 대규모 현대아파트 단지, 신도시 주거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분단의 시범단지 등 전국에 30여만 가구에 이르는 아파트를 건립한 현대산업개발은 주택건설업체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며 국민주거문화를 선



도해 왔다. 이렇듯 과학적 설계, 쾌적한 환경, 효율적 기능, 차별화된 인테리어, 첨단시스템, 철저한 시공, 신속한 사후관리 등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현대아파트는 도시화, 정보화, 자연화를 고려한 새로운 주거공간을 창조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다.

또한 현대산업개발은 주택뿐만 아니라 주거, 비즈니스, 스포

츠, 레저, 문화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도록 원 스톱 리빙(One Stop Living System) 개념을 도입한 현대오피스텔은 호텔식 서비스, 스포츠센터, 실내 중앙공원, 초고속 종합정보통신시스템, 오피스텔 통합관리 시스템 등을 갖춘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창조해 냈다.

1998년 소비자 만족도 베스

트 상품으로 선정된 분당 현대 판테리온, 국내 최초로 건강관리 주치의제도를 도입해 입주자의 건강을 24시간 지켜주는 일산 현대 밀레니엄빌리지, 첨단 정보화시대의 신생활 공간 현대 R&B,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을 조화시킨 서울 천호동 주상복합 빌딩 등 새로운 주거문화를 창조 의 선두에는 항상 현대산업개발이 있었다.

아울러 정보통신시스템, 화상 회의시스템, 빌딩자동화시스템 등 첨단시설을 갖춘 인텔리전트, 오피스 빌딩은 정보화시대에 절실한 사무공간 개발에도 정산의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 특히 올 봄에 착공한 서울 삼성동의 최첨단 고층아파트인 I.PARK는 최고의 입지여건에 최고의 아파트로 건설하여 이 회사의 제 2의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역삼동에 건설중인 I.TOWER의 경우 최근 소위 '테헤란 밸리'로 불리는 정보통신업의 호황과 벤처기업의 확산에 힘입어 사무실과 호텔부문의 사업성을 예상보다 크게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함께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해 첨단 시설과 개방된 시민공간을 갖춘 대전광역시 청사, 21세기 방송문화를 창조해 나갈 서울 목동의 방송회관, 실용성과 예술성이 돋보이는 강동타워 등은 한차원 높은 건축문화를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의 작품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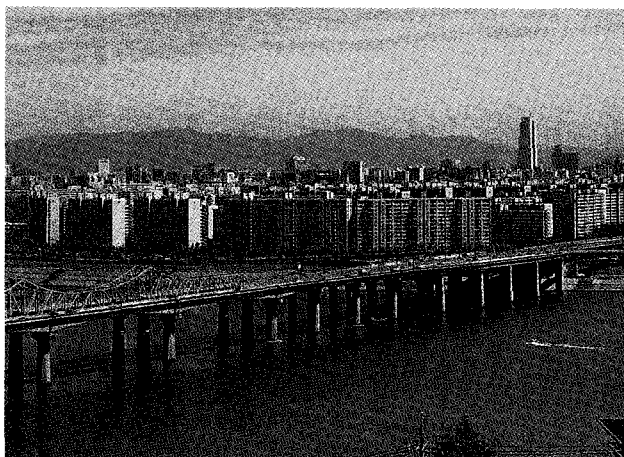
“밀레니엄시대에 ‘꼭 필요한 기업’ ‘성장하는 기업’이 된다는 확고한 의식하에 모든 것을 고객만족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영역도 확대하여

토목, 플랜트, 레저, 환경사업 등으로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외국 선진기술을 도입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종합건설회사로 성장시켜 나갈 것입니다”(현대산업개발 홍보팀 유승학 과장).

21세기 초일류기업으로 도약

현대산업개발은 주택부문 뿐만 아니라 건설업을 선도하는 업체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려는 노력을 적극 펼치고 있다.

SOC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현재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건설, 마산 신항 개발, 용산역 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및 부산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민자사업을 유치하여 국가 인프라 구축에 기여함과 동시에 기업이미지를 높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분당 시범단지 전경

이는데 전력하고 있다. 또한 경춘선 6공구 공사 및 경부고속도로 동이-청성간 공사 등 관급공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통하여 관급공사에서도 안정된 영업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플랜트 사업부문은 선진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도시 쓰레기 소각시설과 하폐수 고도처리시설, 열병합 발전시설 등으로 특화시킬 계획이다. 그리고 동남아 등 해외시장에도 선별적으로 진출하여 명실공히 세계적인 기업으로서의 명성을 얻어 조만간에 해외시장에서도 현대산업개발의 가시적인 영업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현대산업개발은 엔지니어링 능력을 대폭 강화하여 이제는 시공위주의 영업에서 설계와 시공을 모두 담당하는 역량을 가진 업체로 탈바꿈해 이를 통하여 기술과 품질면에서 세계의 어느 기업에도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경영전략이다.

현대산업개발의 고객에 대한 생각은 미래환경을 예측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창조자로서 변화를 주도하는 선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고, 고객제일주의 정신에 입각, 고객만족 경영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한다는

경영이념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현대업개발은 건설부문의 초일류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21세기 사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인 경영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는 지식경영 시스템과 경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ERP시스템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중에는 이를 가동시켜 경영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화 및 효율화를 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현대산업개발은 이제 새천년의 경영 패러다임에 맞게 경영성과가 주주, 종업원, 기업 모두에게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저평가 되어 있는 이 회사의 주가가 주식시장에서 적정수준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회사의 경영성과 및 성장 가능성을 대내외에 알리는 IR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대산업개발 주요 아파트 및 개건축 실적

아파트 사업실적		재건축 사업실적	
사업명	사업규모(세대수)	사업명	사업규모(세대수)
압구정동 1-14차	6,734	암사동 시영	2,938
부평 1-14차	4,875	잠실주공 1단지	6,796
가락 1-5차	1,974	인천신흥 안국	1,303
개포 1-4차	1,617	월계 신동아	1,281
부산민락 1-4차	1,180	영등포 신우	976
춘천후평 1-4차	1,298	양천 신정	703
분당시범 1,2,8차	2,745	안양호계 경향	2,319
이리모현 1-6차	2,019	화곡 양서 흥진	778
대전유천 1-3차	1,940	화곡 제2주공	2,884
인천옥련 1-5차	3,304	장안시영 1단지	2,654
군산라운 1-4차	2,512	신정동 신세계	603
천안쌍용 1-5차	1,491	내발산 주공	1,918
김해내외 1-4차	1,690	대치동 도곡 주공	1,056
광주일곡 1-2차	1,242	성수동 성수1단지	706
신림 3구역	1,634	부산 개금 주공	1,424
일산 8, 10차	1,204	삼성동 해청	737
대전둔산	1,971	부천중동 주공	3,770
천안신방 2-3차	1,996	무악동 무악연립	1,052
남가좌 6구역	1,485	잠실주공 3단지	3,864